

- 주요 뉴스: 미국 '22년 12월 소비자물가, 상승세 둔화. 연준의 통화긴축 완화 기대 증가
 - 연준 주요 인사, 금리인상 속도 조절 필요, 고금리 유지 의견도 제시
 - 중국 '22년 12월 생산자물가, 하방 압력 약화. 경기 회복 지속 예상
 - 일본은행, 초완화 통화정책의 부작용 검토할 전망. 추가적인 정책 조정 시행될 가능성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 조절 기대 확산 등이 배경

주가 상승[+0.3%], 달러화 약세[-0.9%], 금리 하락[-10bp]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소비자물가의 상승세 둔화 등이 호재로 작용
유로 Stoxx600지수는 미국 증시 영향 등으로 '22년 4월 이후 최고치
- 환율: 달러화지수는 연준 인사들의 금리인상 폭 축소 발언 등이 영향
유로화와 엔화가는 각각 0.9%, 2.5% 상승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인플레이션 둔화 지속 전망 등이 반영
독일은 미국 국채시장과 유사한 이유 등으로 4주래 최저 수준

※ 원/달러 1M NDF환율(1238.5원, -7.3원) 0.5% 하락, 한국 CDS 보합

		1/12일	1/11일	전일대비			1/12일	1/11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3,983.2	3,969.6	0.34%	국채 금리 10y	미국	3.44%	3.54%	-10bp
	유럽	450.22	447.41	0.63%		독일	2.16%	2.20%	-5bp
	중국	3,163.5	3,161.8	0.05%		영국	3.33%	3.41%	-7bp
	일본	26,450	26,446	0.01%	CDS 5y	한국	45bp	45bp	0bp
	한국	2,365.1	2,359.5	0.24%		중국	54bp	56bp	-2bp
환율	달러지수	102.25	103.19	-0.91%	위험 지표	EMBI+	-	388	-
	유로화	1.0853	1.0757	0.89%		VIX	18.83	21.09	-10.72%
	엔화	129.25	132.45	2.48%		WTI유	78.39	77.41	1.27%
	위안화	6.7295	6.7650	0.53%	원자재	구리	417.3	416.6	0.17%
	원화	1,245.8	1,246.2	0.03%		금	1,897.1	1,875.7	1.14%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미국 '22년 12월 소비자물가, 상승세 둔화. 연준의 통화긴축 완화 기대 증가

- 작년 12월 소비자물가(CPI)의 연간 및 월간 상승률은 전월비 모두 하락(각각 7.1%→6.5%, 0.1%→-0.1%). 근원 CPI 상승률의 경우 연간 기준으로는 하락했으나 월간 기준으로는 소폭 상승(각각 6.0%→5.7%, 0.2%→0.3%)
- 이는 공급망 개선과 수요 감소에 따른 제조업 제품 가격의 하락에 기인. 반면 월간 기준 서비스 부문은 노동공급 부족 등으로 상승(0.4%→0.5%). 항목별로는 휘발유 및 중고차 가격이 내렸고(각각 -2.0%→-9.4%, 0.0%→-0.1%), 식품 가격은 상승률 하락(0.5%→0.3%). 반면 주거비 상승률은 전월 대비 높은 수준(0.6%→0.8%)
- 이번 결과로 향후 통화긴축 강도가 약해질 수 있다는 기대가 확산. 다만 전반적인 인플레이션 추세는 긍정적이나 서비스 가격 상승률이 여전히 높아 연준이 물가 목표 달성 관련 안도감을 갖기에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은 편. 이를 반영하여 다수의 전문가들은 2월 FOMC 결과에서 0.25%p 인상을 예상
- 일부 투자자들은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지 않은 가운데 인플레이션 압력 약화는 '골디락스(Goldilocks)' 시나리오 기대를 높인다고 평가(Swissquote Bank)
- CME의 FedWatch Tool에 따르면, 현재 4.25%~4.50%인 연방기금금리 목표는 3월 정점(4.75%~5.00%)에 이르고 11월과 12월에는 각각 0.25%p의 인하가 이루어져 연말에는 다시 4.25%~4.50% 수준까지 하락할 가능성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연준 주요 인사, 금리인상 속도 조절 필요. 고금리 유지 의견도 제시

- 필라델피아 연은의 하커 총재는 공격적인 긴축이 막바지 국면으로 향하고 있어 향후 금리는 0.25%p씩 인상되어야 한다고 언급. 또한 현 상황에서 금리가 5.00%를 초과하는 수준까지 인상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피력
- 리치몬드 연은의 바킨 총재 역시 작년과 같은 공격적인 금리인상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며, 앞으로 물가 하락을 위한 노력은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발언. 반면 세인트루이스 연은의 블라드 총재는 금리를 5.00%까지 신속하게 인상해야 하며, 인플레이션 억제에 높은 수준의 금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

■ 미국 '22년 4/4분기 재정수지 적자 확대. 부채한도 상한 확대의 필요성 부각

- 작년 4/4분기 재정수지는 지출 확대 및 수입 감소 등으로 4210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여 전년동기비 12% 증가. 재무부는 연방정부의 부채가 상한에 근접하고 있다고 발표. 민주당은 정부지출 확대를 위해 부채한도 상한을 높이기 원하지만 공화당은 이에 대해 반대 입장을 견지

■ ECB 설문조사, '22년 11월 소비자 기대 인플레이션은 전월비 하락

- 1.4만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1년 후 물가상승률을 5.0%로 예상하여 전월(5.4%) 대비 하락. 이번 결과는 식품 및 에너지 가격의 하락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 반면 향후 1년 후 성장률 전망은 이전에 비해 개선(-2.6%→-2.0%)

■ 중국 '22년 12월 생산자물가, 하방 압력 약화. 경기 회복 지속 예상

- 작년 12월 생산자물가의 연간 상승률은 -0.7%로 전월(-1.3%) 대비 상승했으나 예상치(-0.1%) 대비로는 낮은 수준. 중국의 생산자물가 둔화 정도가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했으나 전반적인 추세는 상승하고 있음을 확인. 이를 고려할 때 내년에는 경기 회복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Bloomberg의 Eriz Zhu)
- 한편 작년 12월 소비자물가의 연간 상승률은 전월비 상승(1.6%→1.8%). 이번 결과는 식품가격 상승 등에 기인. 제로 코로나 정책의 중단 이후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는 신호가 발신

■ 일본은행, 초완화 통화정책의 부작용 검토 전망. 추가적인 정책 조정 시행될 가능성

- 일간지 요미우리 등에 따르면, 일본은행은 다음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현행 정책의 문제 등을 살펴볼 것으로 예상. 아울러 이러한 움직임은 수익률곡선제어(YCC)의 추가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진단
- 한편 보고서를 통해 여러 지역에서 경제활동이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노동 공급부족 등으로 다수의 기업이 임금인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 아울러 인플레이션 목표(2.0%) 달성이 가능하다고 강조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 이벤트(1/13 현지시각 기준)

- 미국 1월 미시건대 소비심리지수 및 5년 후 소비자 기대 인플레이션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미국 경제, 경기연착륙 성공해도 경제적 피해는 상당할 가능성 - 블룸버그

(A Soft Landing Won't Mean the Economy Is Safe)

- 미국의 물가상승률 둔화 및 양호한 노동시장 등으로 경기연착륙 기대가 확산. 다만 경기연착륙은 높은 인플레이션의 장기화를 의미. 이는 실질임금 하락 등에 따른 가계의 부채 및 이자부담 증가로 이어질 전망. 취약한 기업의 경우 자금조달 문제 심화에 직면하는 등 경제적 피해는 예상처럼 제한적이지 않을 소지
- 또한 연준은 경제적 피해를 감수하며 물가를 목표수준까지 낮추기보다 다소 상향된 수준에서 물가 통제 노력을 중단할 것으로 예상. 이는 연준의 시장신뢰 감소 및 경제적 영향력 약화를 초래. 이에 더해 경기연착륙은 향후 경제 충격 발생 시 충분한 회복력을 유지하기에는 미흡할 것으로 관측

■ 유로존 경제, 인플레이션 하락은 문제를 초래할 우려 - 블룸버그

(Lower inflation could mean trouble for the Euro Zone)

- 연초 크로아티아는 유로존 편입에 성공. 이후 시장에서는 유로화 시스템의 효과적 작동 및 향후 유로존 경제에 대한 장밋빛 기대가 증가
- 하지만 유로존은 디플레이션 압력 및 국가별 경제여건 차이가 동시에 나타날 때 문제가 발생. 또한 높은 인플레이션 뒤에는 디스인플레이션이 뒤따르는데 이는 실질금리 상승으로 이어지는 위험도 존재. 국가 간 경제상황 차이가 다시 주목받기 시작한다면 과거와 같이 단일통화의 부정적 특성이 다시 부각될 것으로 예상

■ 중국의 기업 친화적 정책 전환, 취약한 경제상황이 원인 - The New York Times

(From Disciplinarian to Cheerleader: Why China Is Changing Its Tone on Business)

- 최근 중국 정부는 친기업 정책을 강화. 이는 1개월 전 코로나19 관련 정책의 변경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경기 침체, 일자리 부족, 재정문제 등 취약한 경제성장 요인들에서의 탈피가 주요 목적
- 그 동안 빅테크 규제를 강화했던 정부는 해당 기업들의 감독을 완화하는 한편 부동산 개발업체의 과도한 차입 규제도 점진적으로 철회
- 하지만 이를 두고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이 상당. 특히 정부가 기업 통제에 나설 경우 시장원리와 규정에 충실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 아울러 마중 무역갈등이 완화되지 않으면, 중국 내 사업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관측

■ ESG 투자, 장기적 성과 우수하다는 근거 부족 등의 위험이 존재 - 블룸버그

(When ESG Investing Looks an Awful Lot Like Gambling)

- 작년 한해 다수의 펀드매니저들은 매우 비싼 미국 기술주에 더해 ESG 투자에 열광. 하지만 ESG 투자 과열은 투자 범주를 제한할 뿐만 아니라 투자 성과가 높다는 장기적인 근거도 부족한 것으로 판단
- 예를 들어 상장이 예정된 Hypatia Women CEO ETF는 여성이 운영하는 미국 115개 상장 기업(시가총액 5억달러 이상)에 투자하는데 장기적인 우수성과를 입증할 자료가 없기에 다양성, 사회적 가치, 임팩트 등을 투자 이유로 홍보
- 근거가 부족한 ESG 투자 과열은 시장에서 거품이 많았던 시기에는 관촬을 수 있지만 '23년에는 어리석은 일이 될 가능성. 투자자들은 검증되지 않은 아이디어에 높은 비중으로 투자하는 것이 도박에 가깝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

■ 인플레이션 관련 시장과 연준의 견해 차이, 상당 기간 지속될 소지 - WSJ

(On Inflation, Investors Fight the Fed)

■ 미국의 2% 물가상승률 접근, 경기 등에 위험요소가 상존 - 블룸버그

(Is 2% Inflation in View? Be Careful What You Wish F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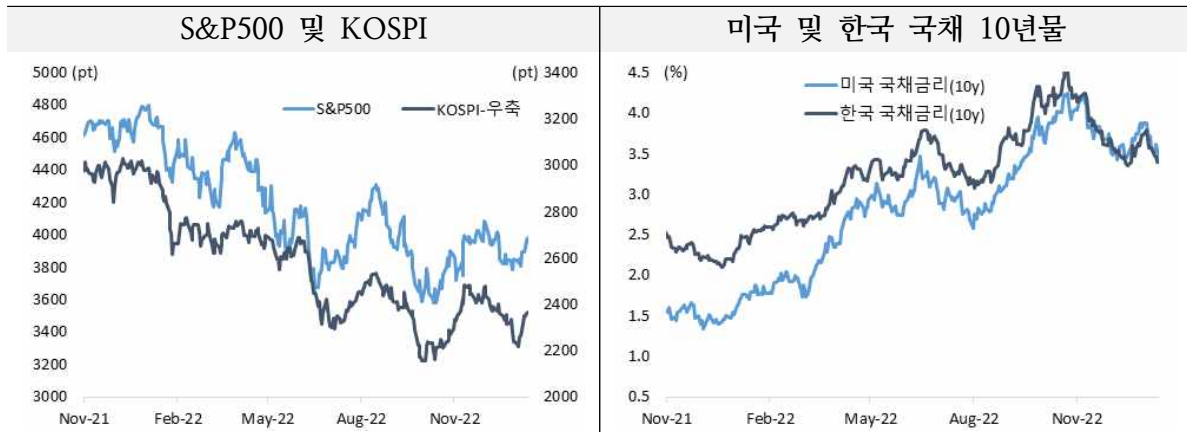
■ 미국 주택시장 활성화 여부, 주택가격 보다 모기지 금리가 관건 - Financial Times

(The uneasy US housing stalemate)

■ 일본 경제, 장기간의 디플레이션 탈피 및 외국인 투자 증가 기대 - Financial Times

(Japan, inflated)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